

특별기획

군산시간여행축제 준비 총력

3.5만세 퍼레이드·새롭게 선보이는 7개 프로그램 마지막 점검 마쳐

익산,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구성

익산시는 품격 있고 창조적인 도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경관분야 공무원, 전문가 및 교수들로 구성된 익산시 제2대 경관위원회 및 경관·건축 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관·건축 공동위원회는 경관과 건축 소치의 각각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들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줄여 익산시 민원 편의 서비스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했다.

경관위원회는 도내 주요대학 유관기관, 관련부서 등의 추천을 통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18명을 신규로 선정하여 공무원 4명, 시의원 4명, 교수 및 전문가 45명으로 총 67명의 인력풀을 구성했다.

이부에서 참여한 전문가들은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육위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 경관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경관위원 임기는 올해 9월 24일부터 2018년 9월 23일까지 2년간 위촉되어 활동하게 된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신규 모범음식점 발굴·지정

군산시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개선과 종사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 문화를 개선하는 등 풍(豊)·화(和)·적(積)을 갖춘 명품 음식 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신규로 발굴, 지정한다.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은 신청하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군산시 식품위생과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군산시 외식업지부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업소는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따라 업소의 위생적 관리, 친절서비스 및 좋은 식단 이행여부 등을 현지조사 후 군산외식업지부 신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결정하게 된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중앙지구대 업무유공 경찰관 표창 수여식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최고 생활안전과장(경정 서영주)이 방문하여 추석 특별방범활동 중 수배자를 검거한 업무유공자 경사 정명근, 순경 김대건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개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석 특별방범기간 중 중앙지구대 정명근 경사는 지난 9월 12일 밤 남중동 여성1인 근무하는 편의점 앞에서 거점 근무 중 비협조하며 걸어가는 대상자를 발견하여 안전한 곳으로 유도 불심검문 후 조화한 결과 수배자로 확인되어 검거한 유공으로 김대건 순경이 표창을 수여받았다.

김 순경은 지난 9월 15일 오전 익산역 광장에서 도보 순찰 중 경찰관을 보고 머리를 숙이며 시선을 피해 터미널 방향으로 뛰어가는 대상자를 발견하여 뒤 쫓아가 불심검문하여 조화한 결과 수배자로 확인되어 검거한 유공으로 전북지방경찰청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경찰서, 업무 유공 직원 표창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28일 오전 경찰서장실에서 업무 유공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은 중요범죄 검거 유공으로 정보보안과 박승환 경위가 경찰청장 표창을, 이경범·장영희 경사가 각각 전북청장 표창을, 김응식 경위는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또한 8월 강력팀 TOP팀으로 선발된 생활범죄수사팀 양승운·김강우 경위가 경찰서장 표창과 부상을 수여받았다. 양승운 경위는 절도 피의자 21명 등 총 32명을 검거하여 생활주변 민생침해 범죄 검거 실적 우수로 이번 표창을 받았다.

김동봉 서장은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중심의 치안활동으로 공경받는 군산경찰이 되자"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가 2016 군산시간여행축제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축제에 특별한 감동을 전해줄 3.5만세 퍼레이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행렬은 해마갈에서 개막식장까지 이어져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총 40여개의 프로그램과 함께 Forever 대학교요제, 타임슬립 GOGO장 등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7개 프로그램도 마지막 점검을 마친 상태이다.

아울러 관객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판 화장실, 커피, 수유실, 휠체어 대여실 등 시설물 준비도 마무리 단계로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최상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축제를 위해 시는 직원 300여명과 자원봉사자 100여명을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통통제와 축제장 주변 환경정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지난 28일 근무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일반행정·사회복지 등 9개 분야 27개 시책 173개 세부지표 나눠 평가

익산시는 28일 이지영 부시장 주재로 40여명의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지자체가 맡은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27개 중앙부처가 주관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 등 9개 분야 27개 시책 173개 세부지표로 나눠 추진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93개 정량지표들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실적 부진지표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과태료 징수 등 전 부서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지표는 부서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가점 반영 등 최우수 기관 선정을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영 부시장은 "지자체 합동평가는 지자체의 행정 전 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결과와 상응성이 크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철저한 평가 지표 관리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며 "평가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부서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9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고, 노후 모나터 교체 등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실적을 거두기 위한 기반 조성에 투입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 농수특산물, 미국인·재미교포 입맛 사로잡다

LA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 '제43회 LA한인축제 농수산물 엑스포' 참여

조미김·간장게장 등 인기

군산시 우수 농수특산물이 미국 LA 교포와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해외바이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는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홍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LA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 '제43회 LA한인축제 농수산물 엑스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군산의 대표 우수 특산품인 조미김을 비롯해 간장게장, 찜갈, 박대·조기, 어간장, 한국의 전통 장맛이 고추장, 된장 등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엑스포 기간 동안 조미김, 멸치, 어간장, 간장게장, 연복소보리 등은 총 8100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으며, 장류와 양념것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5만불 수출계약의 맺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축제기간 동안 미국 현지 농수산물 수입유통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향후 미주시



장 진출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김충렬 군산시 농산물유통과장은 "올해로 8회째 참가하고 있는 LA 한인축제 엑스포에 군산 농수산물의 인기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미국 농수산물 수입유통사 ACE Supply, NEW OCEAN, W&F, YS USA

LLC와의 협업을 통해 미주시장 진출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수입유통사와 상호 협력하여 군산시 농수산물의 미주시장 진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예술의전당, 28일 문화가 있는 날 '암모암모' 공연 개최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 클래식 폭스 콘서트

군산예술의전당은 오는 28일 문화가 있는 날,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된 클래식 폭스 콘서트 '암모암모(Jammolanmo)' 공연을 펼친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의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이번 암모암모 콘서트는 전석 무료로 진행돼 많은 시민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재미와 재치가 묻어나고 웃음이 공존하는 클래식 공연으로 클래식 본연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관객에게 편안한 웃음을 선사하는 공연으로 진행 된다.

이탈리아어 방언으로 '가자 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암모암모' 콘서트는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공연이다.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 베르디의 '대장간의 합창' 등 세계적인 오페라 음악과 요하네스 브람스가

작곡한 '헝가리 무곡' 등의 클래식 연주, 이탈리아 가곡, 동요, 대중음악, 팝송 등 가족 모두가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풍부한 레퍼토리로 구성 되어 있다.

군산예술의전당은 이밖에도 10월 14일 대형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와 문화가 있는 날인 28일 짧은 연희단 The광대의 '굿모닝 광대'를 준비하고 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 (<http://arts.gun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서부보훈청, 부정청탁·청렴실천 결의대회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지난 28일 오후 1시경 지청 3층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리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동참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없는 청렴실천을 위한 서약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청렴실천결의대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서 직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앞선이나 청탁 등 금지,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차별을 금지하는 실천

행동강령을 토대로 전 직원들이 서약을 작성하고 대표직원이 선서함으로써 청렴실천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공직사회에 청탁금지법이 올바르게 정착되길 바라며, 전 직원 모두가 청렴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행정구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하며 청렴실천의지를 다졌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시, 상수도 옥내누수 무료탐사 운영

익산시 상수도과는 상수도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생활용수 사용 시 낭비나 파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수를 인지하지 못해 요금이 과다 부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탐사반은 상수도과 누수방지 담당 1명으로 구성되어 전월 수도사용량이 50%이상 증가되었거나 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주택)를 대상으로 수도 시설물을 점검하여 누수지점을 찾아 주고 있다.

올해에는 9월 현재 926세대 807건의 무료 탐사를 실시했다. 상수도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은 누수 발생 시부터 90일 이내에 보

수공사를 실시한 후 보수 전·중·후 사진과 세균계산서를 첨부하여 상수도과 요금계에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용가 출장 확인 후 누수량의 절반을 감면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상수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현장행정 실천에 전력을 다하겠다. 시민들은 물의 소중함을 알고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고 절약해 달라"며 "상수도관의 누수처 발견 시 즉시 상수도과(☎859-4414)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2015년도에 1,302세대를 탐사하여 1,163건의 누수 원인을 찾아 누수탐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의회,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력방안 논의

28일 군산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24명의 의원과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원태)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의를 갖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업무 협의는 김원태 교육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군산초등학교 이전 현황과 2017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사업설명회 및 군산시 교육발전 방안 등 군산시가 당면한 교육발전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원태 교육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교육발전을 기하기는 어렵다"며 "의회에서 군산교육청의 교육시책 실현을 위한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을 위한 군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희 의장은 "교육에 대한 발전은 의원 전부 최대의 관심사"며 "지역의 교육발전은 시민들의 열망 등에 업고 교육과 행정이 힘을 합쳐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회와 군산교육지원청은 창의적 미래인재육성과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군산 교육발전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자며 협력과 발전을 약속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

내달 7일까지 단전·단수가구 현장방문 실시

738가구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실제 거주 여부 등 파악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단장 최성근)은 내달 7일까지 단전 및 단수가구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시는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파악한 단전 및 단수가구 총 738가구에 대해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현장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결과 실거주자가 있을 경우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을 파악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한 세대에는 긴급지원 등을 통한 체납세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필요시 복지급여신청과 통합사례관리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복지지원단 단원들은 2인1조 4개반을 구성해 대야면 등 4개 읍면동

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도검침원 25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특별교육을 실시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단수 등 위기에 놓인 가정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한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으로 즉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 주민이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어려운 이웃을 함께 발굴하고 찾아주는데 많은 관심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근기자